

# GLOBAL DEFENSE NEWS

**감시정찰** 네덜란드 육군, 탈레스사에 다중임무 레이더 발주

**함정** 프 ECA그룹, '인스펙터 125' 신형 무인수상정 공개

**항공** 미 국방부, CH-53K 초도운용능력 달성 지연 전망

**화력** 러시아, 신형 자주박격포 공개(IDEX 2019)

전재·인용 시 출처(국방기술품질원)를  
밝혀주시기 바랍니다.

국방기술품질원은 <Global Defense News>로  
전 세계 국방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.

◎인터넷망

<http://www.dtaq.re.kr/ko/doc/technical.jsp>

◎국방망

<http://www.dtaq.mnd.mil/ko/doc/technical.jsp>

# 네덜란드 육군, 탈레스사에 다중임무 레이더 발주

GLOBAL  
DEFENSE  
NEWS

감시정찰

함정  
항공  
화력

○ 네덜란드 육군은 2021년 중반부터 탈레스 네덜란드사의 다중임무 레이더(MMR) 9대를 도입해 운용 중인 TPQ-36 레이더를 대체할 예정임. ※ MMR : Multi Mission Radar ※ AESA :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

- 계약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, 네덜란드 정부의 방위산업 전략을 근거로 하면, 1억~2억 5,000만 유로(1억 1,300만~2억 8,200만 달러) 선으로 추정
- MMR은 S-밴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(AESA) 레이더 계열(NS100, NS200, SM400) 중 최신 지상기반 형상이며, 공중감시, 무기위치 파악, 대포병 작전에 최적
  - ↳ 체계 대부분은 동일 레이더 계열의 해상 형상과 같으나, 지상기반 형상의 MMR은 맞춤형 냉각장치, 발전기, 안테나 상승 메커니즘, 적재 트레이 등이 특징

○ MMR은 전개 시간이 2분에 불과하고, 최대 탐지범위 400km이며, 1,0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·추적·분류 가능함.

- 표적에는 공중 정지비행 및 저공기습(低空奇襲, Pop-Up) 헬기, 고정익 항공기, 무인항공기 및 미사일이 포함되며, 대(對)로켓·야포·박격포용으로 사용
  - ↳ 대포병용으로 운용할 경우 일제사격 모드로 사격한 개별 포탄 궤도를 구분 가능
- 레이더의 탐지·분류·추적 전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



네덜란드 육군이 탈레스 네덜란드사의 신형 MMR 9대를 이용하여 기존 TPQ-36 레이더를 대체할 예정

※ 국내 유사체계 업체 : LIG넥스원, 한화시스템

# 프 ECA그룹, '인스펙터 125' 신형 무인수상정 공개

○ 프랑스의 ECA 그룹이 2019년 국제해양방산전시회(NAVDEX)에서 '인스펙터 125' 무인수상정(USV)을 공개하였음.

※ NAVDEX: Naval Defence Exhibition & Conference

- 인스펙터 125 플랫폼은 ECA 자회사 모리취사가 설계한 V2 NG 구조정에 기반을 두고 있고 워터제트로 추진
- 2008년에 개발되어 2014년 개조를 거쳐 20척 이상 건조된 V2 NG는 선체가 손상되어도 침몰되지 않고 복원성이 매우 우수

○ 인스펙터 125는 거친 해상환경에서 ECA그룹의 T-18M 예인음탐기, A18M 중(中)형 자율무인잠수정(AUV) 등을 진회수할 수 있음으로써 기뢰전, 대잠전, 정보/감시/정찰(ISR) 혹은 전력지원 및 방호용(FSS)으로 운용할 수 있음.

※ FSS: Force Support and Protection

- 길이는 12.3m, 폭 4.2m이고 탑재 중량은 최대 3톤이며 만재배수량에서 최고속도는 25kt
- ↳ 인스펙터 125는 함정이나 해안에서 운용 및 전개할 수 있으며 공수도 가능
- 전자기 및 음향 모듈로 구성된 소해체계를 예인할 수 있고 해양관측용 센서를 함상 또는 선체에 부착하며 다른 장비를 통합해 유인 모드로 운용 가능
- ECA 그룹은 2018년 10월에도 인스펙터 125보다 소형이나 거의 동일한 임무 수행과 장비를 탑재하는 인스펙터 120을 공개(2018.10.11.호 GDN 참조)

※ 국내 유사체계 업체: LIG-NEX1



인스펙터 125 USV 이미지

# 미 국방부, CH-53K 초도운용능력 달성 지연 전망

○ 미국 국방부 운용시험평가국은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, 2019년 예정된 미 해병대 CH-53K 킹 스텔리온(King Stallion) 대형 수송헬기의 초도운용능력(IOC) 달성 연기를 표명함.

※ IOC : Initial Operating Capability

- 미 해병대는 훈련된 승무원 및 정비사와 함께 4대의 항공기가 배치됨을 IOC 달성으로 정의
- 시험평가 중 대기속도 표시 이상, 메인 로터 기어박스의 낮은 신뢰성, 테일 로터 구조적 문제, 연료계통 이상, 2번 엔진 고온 가스 흡입으로 인한 가용출력 저하 등의 문제 발생
- 위 문제들로 인해 체계개발 및 시연단계를 완료하기엔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어, 2021년 초 초도 운용시험평가 착수 예정

○ 제작사 록히드마틴은 2023~2024년 1호기 전력화를 위해 미 해군 항공체계사령부 및 해병대와 일정을 조율 중임.

- 26대에 대한 초도 저율생산(Low-Rate Initial Production)은 4차에 걸쳐 2023년 4분기까지 진행될 예정
- 168대에 대한 본격 양산(Full-Rate Production)은 2019년 4분기 5차분 발주를 시작으로, 2031년 12차분까지 진행 예정
- 완전운용능력(Full Operating Capability)은 2029년 달성 예정
- 시제 4대를 포함하여 200대를 미 해병대에 납품 예정



CH-53K 킹 스텔리온 시제기

# 러시아, 신형 자주박격포 공개(IDEX 2019)

○ 러시아가 2월 17일~21일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IDEX 국제방산전시회에서 최신 플록스(Floks) 자주박격포를 처음으로 공개함.

- 소화기를 전방위 방어하는 우랄(Ural)-4320 계열 6x6 트럭 새시 기반
- 120mm 강선식 반자동 화포-박격포 탑재로 박격포탄과 포탄 모두 사격 가능
  - ↳ 별도의 화포 구동장치를 갖춰 원형공산오차를 크게 줄임
- 7.62mm 기관총, 레이저 경고체계 및 광학식 재머로 무장한 원격사격통제체계(RCWS) 상부 탑재
  - ※ RCWS: Remotely Controlled Weapon Station

○ 또한, IDEX 국제방산전시회에서 82mm 드록(Drok) 자주박격포도 처음 공개함.

- 타이퐁(Taifun)-VDV 4x4 지뢰방호장갑차(MRAP) 기반
  - ※ MRAP: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
- 수동 후장식 박격포로 무장한 포탑 탑재
  - ↳ 표준 82mm 박격포탄, 신형탄 사격 가능
- 중량 14톤, 탑승 승무원 수 4명
- 광학식 재머와 연막탄 발사기 6정을 장착



120mm 플록스 자주박격포 모형



82mm 드록 자주박격포 모형

※ 국내 유사체계 업체 : 한화디펜스